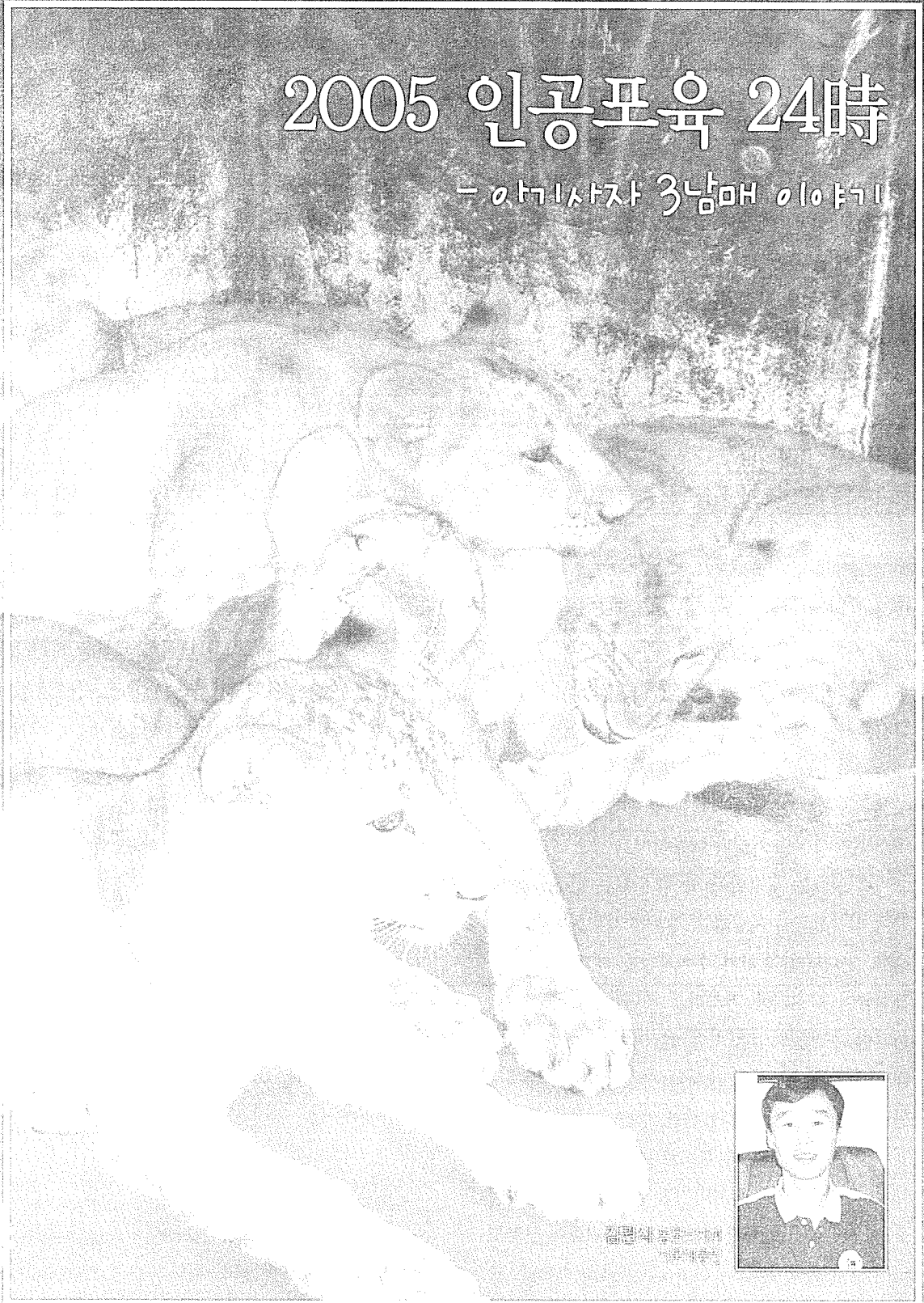


# 2005 인공포육 24時

- 아기사자 3남매 이야기



김원식 동물원 사육사  
기후대응팀

서울대공원 동물원에는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으며 해마다 새로운 동물가족이 태어납니다.

이들 중 일부의 동물은 태어남과 동시에 매우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곁을 부득이하게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경험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새끼를 낳고 어미가 죽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젖이 잘 나오지 않거나, 미숙아로 태어나 스스로 어미의 젖을 빨 수 없거나, 어미의 성격이 이상해서 새끼돌보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2002년 인공포육장을 신설하여 전문적으로 인공포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포육장을 운영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300여종의 다양한 야생동물의 모유 성분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인공포육시 이자료를 토대로 모유와 가장 가까운 분유(개과용, 고양이과용, 조제용, 사람용)를 선정하여 아기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인공포육을 합니다.

매년 4~7월사이에는 대부분의 야생동물이 번식을 주로하는 시기로 우리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기동물들이 예고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분유의 확보 및 포육시설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오던 중 올해 특히 기억에 남는 아기사자 3남매의 인공포육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 인공포육 사전준비

2004년에 아기사자(흑이, 청이, 홍이)를 출산하고 돌보지 않았던 어미사자 새롭이의 분만예정일이 5월 중순경 이어서 우리는 출산의 시간을 기다리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 인공포육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의 예상대로 새롭이는 5월 20일 아기사자 3남매를 분만하였으며, 또다시 자기새끼를 전혀 돌보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아 우리는 어미와 분리하여 신속하게 인공포육장으로 옮겨온 후 우선적으로 젖은 몸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준 후 세균 감염을 방지코자 체대를 소독하여 주었으며 체온의 상승을 위하여 안정을 시킨 후 간단한 신체측정을 하였다.

처음에는 각각거리며 소리를 내고 울어대더니, 1~2시간이 흐른 뒤 안정이 되었는지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올해도 아기사자는 태어날 때 다른 고양이과 동물(호랑이는 2주후 눈을 뜸)과는 틀리게 눈을 뜨고 태어난 것을 관찰하였으며, 눈을 뜨고 태어났지만 사물을 구별하지는 못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성장일자별 급이 및 특징

- ☐ **생후1일차** : 아기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적정 실내 환경을(28℃, 습도 75%) 유지시키고 이후 준비된 젖소초유를 급여하였다. 1일평균 5회로 체중의 약 15%를 기준으로 수유하였으며, 첫 수유에는 약15초정도가 소요되어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한번에 다 먹고 쉬면서 젖꼭지를 입으로 물고 놓지를 않았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인지 행동상태도 매우 활발하고 안정적이었다.
- ☐ **생후2일차** :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수유시 손에 상처가 날 위험을 예방하고자 발톱을 깎아 주었으

며,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수유 후에는 소등을 하고 편히 쉬도록 하였다.

■ **생후 3일차** : 벌써 수유량이 부족한지 시간이 되기도 전에 울어대기에 오늘부터는 체중의 17%의 기준으로 수유를 하였으며 제 양을 먹고 나면 편한 자세로 수면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늘은 움직임 현저하게 많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움직임의 근원은 후각에 의한 반응으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탯줄이 굳어 탈락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생후 5일차** : 오늘은 문을 여는 소리에 반응을 하는 것이 귀도 어느 정도 트인듯하며 지금까지는 아기동물의 면역성을 고려해 초유를 먹였지만 오늘부터는 고양이용 분유를 수유하였으며, 분유변화에 대한 거부반응 없이 잘 적응하여 순조롭게 분유를 먹일 수 있어 다행이었다.

■ **생후 10일차** : 야생적인 습성이 나타나 카악거리기도 하고 수유를 하고 나면 앞발을 혀로 다듬질 하며 입맛을 다시는 모습을 관찰했으며, 이제는 귀가 트여 모든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생후 12일차** : 암컷이 변비증상이 있어 분유에 소화정장제를 19:30에 평소보다 조금더 첨가하여 주었더니 야간수유 24:30분에는 원활하게 변을 보는 모습을 관찰하였으며, 보통 아기동물을 인공포육하면 생후 1주일 내는 변이 약간 무른듯한데 이후로는 소화력이 향상되어 변을 1~2일에 1번 보고 매우 단단한 변을 보기 때문에 변비에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여러 마리의 아기동물을 함께 포육하다보니 조금만

배가 고프거나 습관성에 의해 서로의 생식기 및 귀를 빠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때는 적절히 격리를 시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었다.

■ **생후 30일차** : 이제는 모습도 어느 정도 잡혔으며 케이지안에 넣어준 인형을 가지고 잘 놀며 이제는 이빨 또한 제법 커져서 얼마 후에는 고기도 먹을 듯해보였다.

■ **생후 60일차** : 이제는 어금니가 많이 컸기에 이유를 시도 소고기와 닭고기를 잘게 다져서 분유에 혼합한 후 조금씩 주었는데 생각처럼 잘 먹었다. 앞으로는 분유의 양을 줄이고 고기의 양을 늘리면서 완전 이유될 때까지 급여하여야 할 것 같다.

■ **생후 80일차** : 오늘부터는 분유를 빼고 고기에 소화정장제만을 혼합하여 급여하였다.

## 아기사자의 수난

그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잘 키워주어 우리를 기쁘게 하더니 여름장마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둘째 무진이가 몸에 조그만 검은 반점이 생겨 우리를 긴장시키더니 점차 다른 아기들에게도 전염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원인규명 및 약육치료를 통해 더 이상의 병 진전은 막을 수 있었다.

## 아기사자 합사과정

포육초기부터 우리는 이미 잘 자라고 있는 5.1생 3수와 5.20일생 3수의 합사를 고민해왔는데 그동안 별무리 없이 잘 자라주어 이제는 합사를 위해 준



■ 체중 및 분유량 변화

일차	1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70	80
체중(kg)	1.42	1.6	2.04	2.38	2.84	3.24	3.76	4.46	4.96	5.4	5.8	6.35	7.0	8.8	10
분유(ml)	40	55	68	85	100	110	120	135	135	140	155	180	230	100 희석	50 희석

비를 하였다.

우리는 사자 2무리를 각각의 전시장에 입실시키고 그사이에는 유리로 서로 얼굴을 간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5.20생의 특별관리를 통해 5.1생과 덩치가 비슷하도록(약20Kg)이 되도록 하였으며, 여름아기동물 별밤축제가 끝나는 9.1부터 합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9.1일 오전 9시부터 합사를 하여 먹이를 줄때는 별도로 분리 후 급여한 후 합사하여 관리하다 오후 5시부터는 격리를 시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였더니 서서히 두 무리간에 친화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합사 2주후부터는 주야에 함께 생활 하도록 두었으며 먹이를 먹을 때만 무리를 분리하여 급여하였으며 합사10일이 지난 후에는 먹이도 함께 주고 먹이를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았으나 먹이다툼은 우리가 우려한 것 보다 심하지 않아 다행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서로 친한 듯 하던 녀석들 사이에서 서서히 서열이 생기는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5.1생 수컷이 대장이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서열다툼은 별 문제없이 자리 잡혀 우리는 안심을 하였다.

인공포육시 주의 및 향후계획

첫째 고양이과 분유만으로는 인공포육 할 경우

아기동물의 골격발달, 시력, 면역성에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육초기 가급적이면 초유를 먹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분유에 타우린성분 및 칼슘제를 별도로 첨가하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고,

둘째 이유기 관리중에는 인공포육장의 특성상 생토를 급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완전이유가 되면 가급적 생토를 주2~3회정도라도 급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합사가 필요한 특히 맹수동물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인공포육이 종료된 어린동물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당동물사로 이동 합사할 대상동물과의 충분한 사전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포육시 그 동물에 대한 습성 및 생태 등의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바른 기간에 자연스러운 무리생활이 가능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아기사자 6마리는 별다른 문제없이 합사를 성공 하였으나 향후 다른 무리와의 합사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가능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토의과정 및 만반의 준비를 하여 내년에는 우리공원에서 웅장한 사자무리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동물원에서 다양한 야생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사육사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㉟